

‘제25회 JW중외박애상’ 윤도흠 연세의료원 의료원장

소외계층 대상으로 교직원
나눔운동 전개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윤도흠
연세의료원 의료원장

연세의료원 윤도흠 의료원장이 제25회 JW중외박애상을 수상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연세의료원 윤도흠 의료원장이 ‘누구나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헌신적인 나눔 활동을 통한 인류에 실천과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환경 개선에 앞장선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JW중외 박애상을 수상한 윤도흠 연세의료원장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급여 1% 모금’, ‘기쁨 나눔 프로젝트’ 등 교직원 나눔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2011년에 시작한 ‘Global Charity’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총 18개국 129명의 환자

들에게 선진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외에도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공공시설에 휠체어와 보관소 기증, 병원에 공연장 및 갤러리 공간을 마련하는 등 의료서비스 제공에 힘써 왔다.

윤도흠 의료원장은 “어려운 의료환경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대신해 받았다”며 공을 돌렸다.

JW중외박애상은 JW중외제약과 대한병원협회가 박애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공동으로 제정한 상이다. 1993년 제정된 이래 지난해까지 37명의 수상자가 배출됐다.